

SG發 8개 종목, ‘하따’ 노리는 개미들… ‘빚투’ 경고음

〈하한가 따라잡기〉

증권가, 반등 가능성 시일 걸려
다올투자증권만 30% 가까이 ↑
하락률 높아, 기대하고 매수 위험
주가 안정화 최소 6개월 이상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조작 사태’에 휘말려 주가가 급락한 8개 종목에 반등을 노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몰리고 있다.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반등 가능성보다 주가조작 이전 가격으로의 회귀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어 신중한 투자가 당부된다.

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19일부터 이날까지의 코스피, 코스닥시장 종목별 주가등락률 순위에서 SG발 사태 관련주들이 하락률 10위권안에 7개 종목이 포함됐다. 8개 종목 중 다올투자증권만 지난달 25일 이후 30%가까운 반등세를 보일 뿐이다. 급격한 하락세에 개인 투자자들은 저가매수를 시도하고 있지만 나머지 종목의 주가는 지난 달 28일 반짝 반등한 이후 다시 내리막



서울 종로 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뉴스스

이거나 상승탄력을 못받고 있다.

이기간동안 선광(-80.10), 대성홀딩스(-79.51), 서울가스(-78.95), 삼천리(-71.87), 다우데이터(-67.71) 세방(-62.41) 순으로 하락률 1~6위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SG발 주가조작 사태가 표면화된 지난달 24일부터 8일까지 개인 투자자들은 삼천리(837억 원), 다우데이터(622억 원), 하림지주(522억

원), 서울가스(382억 원), 대성홀딩스(352억 원), 세방(303억 원), 선광(303억 원) 등 7개 종목을 순매수했다.

개미(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 단기 반등을 노리고 낙폭이 큰 종목에 도전하는 ‘하따(하한가 따라잡기)’, 일명 불나방 전략이 유행처럼 번지는 모습이지만 단기간에 반등주세를 형성하지 않으면 주가 2차 하락으로 손실이 심각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된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주가수익비율(PER)이 40~50씩 되는 종목들은 하락률이 높다고 해서 반등을 기대하고 매수하면 아주 위험하다”며 “예를 들어 15배 오른 상태에서 80% 내렸다고 해서 들어가는 것은 손실률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주가조작 전 가격을 확인해 보고 들어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성홀딩스의 경우 현재도 PER가 115 정도로 집계되기 때문에 고평가위험을 조심해야 한다는 의미다. 2022년 기준 한국 상장사의 코스피 200 기준 PER는 13.3배이며, PER가 10이하인 종목에 투자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SG발 주가조작 사태는 현재 금융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반등 기회가 쉽사리 잡힐 수 없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주가조작이 적발되면 징역 5년·10년씩 엄하게 처벌하고 있고, 수사기간도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간에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며 “주가가 안정화를 찾기 위해서는 최소한 6개월 이상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도 “보통 주가 조작 사건에 연관됐던 종목들은 주가 조작 이전 수준으로 회귀할 가능성,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전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떨어지기도 한다”며 일종의 낙인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이어 “당분간은 반등이 아예 안 될 수도 있다”며 “저가매수 기회로 판단할 경우 오히려 투자 손실로 연결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다올투자증권과 하림은 하락세를 멈춘 모습이다. 특히 하림지주는 지난 2일 ‘매수’ 투자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김장원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림지주가 양재IC 개발 관련주로 기대감이 실린다”며 목표주가를 기존 1만 4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투자의견을 ‘매수’로 유지했다. 하림지주는 PER가 3.34선이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30평대 서울아파트 8억… 견본주택 구름인파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이지움’
15일 특별공급·16일 1순위 등 청약
역세권·학세권·숲세권 트리플 입지

부동산 수요자들이 돌아왔다. 지난 겨울, 견본주택 내 사람의 발길이 뜹했던 것과는 판이하다.

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말 두 산건설이 서울 응암동 신사동 일원에 공급하는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이지움’(424가구) 견본주택에 개관 이후 4일 동안 1만여명의 방문객이 북적였다. 오픈 첫날부터 주말까지 방문객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졌다. 특히 젊은 신혼부부를 비롯해 자녀와 함께 온 가족 단위와

중장년층까지 다양한 연령층의 고객들이 찾았다. 또 견본주택 내부에서는 유니트 관람을 위한 대기줄은 물론 청약 관련 상담까지 이어졌다.

은평구 응암동에 거주하는 이 모씨(여·38)는 “지하철역과 학교, 공원 등을 모두 걸어서 이용할 수 있어 마음에 든다”며 “서울 새 아파트 30평대를 7억~8억원대로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청약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이지움’이 수요자들이 관심을 끈 이유는 역세권·학세권·숲세권을 모두 누릴 수 있는 트리플 입지란 분석이다. 지하철 6호선 새절역 이 도보권에 위치하고 있다. 새절역에는

신촌, 여의도를 거쳐 지하철 2호선 서울 대입구역을 잇는 경전철 ‘서부선’과 새절역~창릉신도시~고양시청을 연결하는 ‘고양은평선’ 사업이 추진 중이다. 게다가 두 정거장 거리인 디지털미디어시티역에서는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으로 환승이 가능하다. 인근 연신내역에는 G TX-A노선이 개통될 예정이다.

분양가도 관심을 끈다. 84㎡ 분양가는 7억6060만원~8억8500만원 수준으로 인근 ‘백련산 SK류 아이파크’(2020년 준공) 84㎡보다 1억~2억원 싸다. 또 ‘새절역 두산위브 트레이지움’은 비규제 단지다. 때문에 투자 목적의 수요자들도 있다는 분석이다.

아모그린텍, 고효율 자성 부품 성장 기대

株라큘라의 종목
고성장 첨단 소재기업 재평가 전망

독립리서치 리서치알은은 아모그린텍에 대해 테슬라 등 고효율 자성 부품 수요 증가에 따른 2023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대했다. 주가전망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적정 주가로 2만6500원을 제시했다.

이승환 리서치알은은 “올해 테슬라 등 전기 차용 고효율 자성 부품 수요 증가와 에너지저장장치(ESS) 관련 신사업 성공으로 동사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기대된다”며 계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아모그린텍은 고효율 자성 소재를 국내 최초, 세계에서 3번째로 자체 개발한 기업이다. 2019년 기술특례 상장 이후 오랜 기간 기존 연성인쇄회로기판(FP

글로벌 자성 코어 시장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출시 예정이며, 리비안은 고출력 트럭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전기차 기업이기 때문에 평균판매가격(ASP)이 상승될 전망이다.

이 연구원은 “최근 테슬라가 모터에 들어가는 회토류 대체품으로 페라이트를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에 동사의 고효율 자성 부품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올랐지만, 동사의 성장성을 고려한다면 여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분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2030 재테크, 부동산 투자 예정 ‘54.5%’

주춤 하던 주택 매수세 다시 살아나

경기침체의 여파로 투자시장이 밝지 않은 가운데 20·30세대 절반 이상이 향후 부동산에 투자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 상품으로는 기존 아파트를 가장 선호했다. 8일 부동산플랫폼 업체 직방이 어플리케이션 이용자 726명을 대상으로 올해 투자계획에 대해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에 따르면 ‘재테크,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36.0%가 ‘예’라고 응답했다.

40.8%는 현재 부동산은 없지만 ‘투자 예정’이라고 응답했다.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계획 없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23.3%였다.

연령별로는 살펴보면 20·30세대에서는 현재 재테크, 투자 수단으로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비율이 19.6%로 낮았

지만 향후 부동산에 투자 예정이라고 응답한 비율(54.5%)이 절반 이상이 넘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

실제로 한동안 주춤하던 20·30세대의 주택 매수세가 다시 살아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월별 아파트 매입자 연령대별 거래현황’을 보면 지난 3월 서울시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 3234건 중 20·30세대가 매수한 건수가 1161건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298건)을 기점으로 4개월 연속 증가했다.

현재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는 상품은 ‘기존 아파트’가 47.5%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아파트 분양권, 입주권(20.7%) ▲상가, 오피스(7.7%) ▲오피스텔, 토지(각각 6.1%)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4.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대환 기자 kdh@



한편 분양 일정은 오는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일 1순위, 17일 2순위 청약을 실시한다. 견본주택은 경기도 고양시 덕은동(상암월드컵파크 9단지 인근)에 위치해 있다.

/이규성 기자 peace@